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이양철 펠릭스 / 덕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이 생동하고 죽은 듯하면서도 새싹들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2006년 어느 봄날, 내 몸은 점점 야위어가고 생기를 잃어가고 툭하면 감기 몸살기가 있고, 자다 보면 식은땀이 흘러 베개를 적시곤 하였다. 특별히 아픈 데도 없는데 몇 개월 사이 몸무게는 67Kg 하던 것이 61Kg까지 줄었지만 생활에는 아무 지장이 없었다. 때마침 전라도 어느 시골 본당에서 성전건립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식품을 팔러 왔길래 제 것과 제 아내 아가다와 먹으려고 2인분을 샀는데 아가다가 먹지 않는다고 하여 혼자서 거의 다먹어갈 무렵 성당에 가면 몸무게가 6Kg이나 빠진 제 모습을 보고 교우들이 어디 아프냐고 자꾸 질문을 한다. 그러면 성전건립 기금 건강식품을 먹었더니 다이어트가 되어 몸무게가 줄었다고 먹어보라고 권했다. 그러던 6월 둘째 주일날 미사를 마치고 평협 임원들과 점심 식사를 하는데 간호사 헬레나 자매가 눈동자를 돌려보라고 하며 눈을 관찰하더니 눈에 황달이 와 있다고 간이 나쁘면 황달이 오니까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한다. 그 소리를 듣고도 바로 병원엘 가지 않고 수요일 가톨릭회관에 주교님께서 안배하여 허락해주신 운전기사사도회 사무실 지붕이 비만 오면 새길래 장마철을 대비하여 지붕 교체공사를 돕기 위해 지붕에 앉아 있는데 지금껏 겪어보지 못했던 정말 힘든 제 몸을 느낄 수 있었다.

정말 내 몸에 병이라도 생긴 걸까? 왜 이렇게 피곤하고 힘이 들지….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하루 일을 하고 금요일이 쉬는 날이라 마지못해 평소에 다니던 내과 병원을 찾아가 증상을 말씀드렸더니 초음파검사를 한번 해보자고 한다. 초음파 검사기를 등에 대는 순간 의사선생님께서 ‘어이쿠, 하나 나왔네.’한다. 무엇이 나왔길래 저렇게 놀랄까 하며 걱정이 앞선다. 의사선생님께서, ‘췌장이 부어서 담도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황달이 온 것 같다’며 촬영한 사진을 봉투에 담아 주면서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한다. 봉투를 받아들고 병원문을 나서려는데, 어차피 큰 병원에 가면 알건데 하며 80% 췌장암 같다고 한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하느님께서 펠릭스에게 허락하신 생명은 여기까지구나 하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췌장암에 걸리면 못 산다 하던데…. 하지만 마음은 의외로 마음이 편안하고 하느님께 감사한 마음이 앞섰다. 내가 스무 살도 안 되었던 어느 날 외출했다 집을 들어서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대뜸 하던 말 ‘에이 이 총각은 사십도 못 넘기고 죽을 팔자네.’ 그 아주머니는 저희 형수가 좋아하던 점쟁이었다. 어느 순교자 성월에 해미성지에서 미사를 드리는데, 신부님 강론 말씀 중에 사제의 강론 말씀은 성당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아니 듣자마자 까맣게 잊지만 점쟁이가 한 말은 평생을 두고도 잊지 않는다는 말씀이 불현듯 머리를 스쳐지나간다.

저 역시 신부님께서 강론하신 이 말씀 말고는 기억에 남는 말씀이 없지만 점쟁이가 한 이 말은 지금껏 기억하며 세상을 조심조심 살아온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데 사십도 못 넘기고 죽는다고 했는데 그동안 예수님 열심히 믿고 따른 덕분에 13년을 더 살았으니 이것만으로도 큰 축복이고 은총이지 더 바랄 게 뭐 있으랴. 자신을 위로하며 성모병원 쪽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었다. 성모병원에서 예약이 다차서 ct 촬영도 안되고 토요일 응급실로 입원해서 어떻게 해보자고 한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어떻게 결과 나왔느냐?’고 묻는다. ‘여보!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펠릭스의 삶은 여기까지인가 봐! 애들하고 독하게 마음먹고 살아갈 준비해.’ 너무 직설적인 말에 아내는 넋을 잃고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하며 울음을 터트리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그동안 아내에게 애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하고 하느님 일 한다는 핑계로 가정에 소홀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자화자찬 같지만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왔던 주님 자녀로서의 생활, 1985년 6월에 펠릭스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자마자 주일도 못 지킨 냉담신자였지만. 그때마다 누나가 애야 주일은 꼭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 누나 나 개인택시만 받으면 성당에 가지 말라고 해도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다짐 다짐을 했었다.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해 1988년 10월 개인택시 면허를 받고 나니 누나와 한 약속이 주님께 대한 약속으로 제 가슴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세례를 받은 성당도 신축 중인 성당이었는데 이사를 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성당도 신축 중인 성당이였다. 성당 건축기금 마련을 위해 바자회를 열면 일하다가도 달려가서 모자라는 물품도 조달해 주고 청소도 하고, 성당에 할 일을 두고 그냥 일을 하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성당을 향해 있으니까 차라리 성당에 가서 봉사하고 봉사하느라고 빠진 시간만큼 더 일을 하는 게 마음의 평화였다. 이렇게 열심히 성당 일을 하다 보니 11개나 되는 단체에 관련되어 활동하게 되었다. 본당에서 무슨 활동을 해야 11개가 될까요?. 레지오 단장, 꾸리아 단장, 꾸리아 단장이니까 교구 레지아에 참석해야 하고, 평협임원, 울프레야 간사, 성가대, 남성구역반장, 교도소후원회, 운전기사사도회 총무, 성당 테니스회 총무, 평협 전례부장이니까 전례회의를 매일 해야 하고.... 한 달에 열흘 쉬는 날인데 열하루를 써야 하니 자연히 가정에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때는 주님이 죽으라면 죽을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기로 다짐을 했을 때였다. 오죽하면 아내가 당신은 하숙생이라고까지 했다. 아내가 둘째를 출산하던 날도 병원에만 태워다주고 기사사도회 부부동반 월례회의를 하고 있는데 자매님 한 분이 아가다는 어디 갔냐고 묻길래 병원에 출산하러 갔다고 하니까 자매님이 전화를 하더니 아들 낳았다고 알려줬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아주고 이해해준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아내에게 애들 데리고 독하게 마음먹고 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했으니 그 심정은 주님만 알고 계시리라....

토요일 아침에 입원준비를 해서 성모병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이제 얼마 안 있어 사랑하는 가족, 친지, 친구, 성당의 형제자매들을 못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절박한 마음에 아무 일도 생각나지 않았다. 입원실을 배정받아 입원실에 들어서니 그때가 마침 독일 월드컵이 열리는 시기라 병실 tv에는 월드컵 중계로 병실이 떠나갈 듯 시끄러웠다. 모두 이 순간만이라도 자신의 아픔을 잊어버리고 월드컵 중계에 폭 빠져있는 듯했다. 제 옆에는 천식환자가 있어서 가래 끓는 소리와 수시로 가래를 제거하는 기계 돌리는 소리에 더욱 안정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던 중 가족들에게 제 입원 소식을 알렸는지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더니 더 큰 병원으로 가자고 성화다. 아니야 나는 죽어도 성모병원에서 죽고 성모병원에서 수술할거야, 고집을 피워보지만 걱정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는 아가다와 큰딸 엘리사벳 아들 베드로, 그리고 10살 된 늦둥이 막내딸 오틸리아의 근심 어린 눈빛에 제 마음이 약해지고 있었다.

그래,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가족들이 나에게 바라는 마지막 소원인지도 모르겠구나, 대학병원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병실 천장만 바라보고 있노라니 만감이 교차하며 하염없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린다. 성당일 남보다 조금 열심히 한다고 남을 업신여기고 형제자매에게 화내고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판공성사 때가 되면 죄 지은 게 없는데 무슨 죄를 고백해야 하나 하며 교만스럽게 살아왔던 지난 일들을 생각하니 더욱 뜨거운 눈물이 앞을 가린다. 마음속에는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는 절망적인 생각 밖에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생각이 났다. 죽음만 생각하고 까맣게 잊었던 예수님! 기도를 해야지! 주님께 매달려야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거야? 기도를 시작했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이 죄인 펠릭스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몇백 번 몇 수천 번을 미친 듯이 애원하며 반복해서 밤새도록 이 기도만 드렸습니다. tv에서 월드컵 중계소리도 옆 천식환자의 기계 돌아가는 소리도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오직 주님께 매달리며 밤새도록 미친 듯이 기도만 드렸다. 새벽녘쯤이었을까? 마귀가 나가는 모습을 저는 보았다. 한 마리도 아닌 두 마리가... 아래 위 검은 옷을 입은 마귀는 얼굴은 보여 주지 않고 왼쪽 문을 열고 잽싸게 광 닫고 나가고 또 한 마리의 마귀는 환자복을 입고 병실 침대에 앉아 있는 나를 힐끗 쳐다보더니 성질을 버럭 내며 오른쪽 문을 열고 광 닫고 나가는 모습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이 모습을 체험하고 나니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마귀를 쫓아내시고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하신 주님 말씀이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다. 절망적인 생각들을 주님께서 모두 걷어 가셨는지 제 마음이 희망적으로 변해있었다. 주일 아침 성모병원을 떠나 대학병원으로 병실을 옮겼다. 대학병원에서 수술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를 수술하기 위해 기다렸듯이 월요일 아침 10시에 수술하기로 결정이 되었다.

주일 오후 본당 신부님께서 병자성사를 주시기 위해 오셔서, 밝게 웃는 제 모습을 보시면서 아픈 사람 맞느냐고 농담까지 하신다. 고해성사를 마치고 병자영성체를 하려는데 옆에 있던 바오로 형제가 금식을 해야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바람에 성체를 못 모셨다. 갑자기 생긴 일이라 지금도 두고두고 마음에 남는다. 주님의 성체를 영했어야 수술하다 죽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텐데….

어느덧 날이 밝아 수술 시간이 다가왔다. 환자용 침대에 누워 수술대기를 하며 묵주기도를 바치는데 수술실 문이 열린다. 성호경을 그으며 ‘주님! 저의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마취 마스크를 하고 주님의 기도를 바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실낱같은 목소리가 들려온다. 보호자 오셔서 병실로 모시고 가라는...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천상의 목소리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 외쳤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아름다운 천상의 목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할 일이 또 있을까?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10시간 만에 회복되어 일반 병실로 올라와 나의 모습을 보니 주머니가 5개나 주렁주렁 달려 있고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떻게 알았는지 대자 가브리엘과 미카엘라가 문병을 제일 먼저 와서 위로한다. 미카엘라가 내 손을 꼭 잡고 대부님 꼭 일어나셔야 합니다. 대부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할게요. 말을 할 수 없어 고개로 끄덕이는데 가브리엘 대자 부부, 가족들, 지인들 간절한 기도 덕분에, 대자 가브리엘을 통하여 라파엘 대천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

고통을 통하여 주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온몸으로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임을 깨닫는다. 또 신부님을 비롯하여 수녀님, 형제자매들이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는지 그 은혜 두고 두고도 잊지 못한다.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되어 주렁주렁 달린 주머니들과 함께 링거가 달린 스텐드를 의지 삼아 병원 복도를 거닐며 다시 기도를 바친다. “하느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무한한 은총과 자비로 병마의 사슬을 끊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시로 병원 복도를 거닐며 퇴원할 때까지 주님께 드린 감사의 기도다.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서도 주일미사는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례했다.

취장은 수술하면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오로지 영양제에만 의존하여 치료하는데, 벨라도 회장님께서 유럽 여행을 마치고 오시면서 펠릭스를 위하여 가지고 왔다면 주신 루르드 기적수, 도미틸다 수녀님께서 주신 루르드 기적수로 몰래 목을 축이며 40여일을 버텼다. 이렇게 버텼던 병원 생활 53일째 되는 8월 13일 성모승천 대축일을 앞두고 퇴원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하던 일도 멈추고 달려온 친구 안드레아 차를 타고 퇴원하여 먼저 성당으로 달려갔다. 제대 앞에 무릎 꿇고 기도드렸다. “하느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무한한 은총과 자비 덕분에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여 주님 앞에 다시 왔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눈에서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잊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

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성당 문을 나서는데 본당 신부님께서 소리를 듣고 나오셨다. 고생했다는 신부님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들으며 위안과 힘을 얻는다. 저의 신앙생활은 위험한 수술도 했으니 가만히 편안하게 앉아서 몸을 사리며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를 오랜만에 많은 교우들과 본당에서 드리고 형제자매들로부터 분에 넘치는 격려와 위로를 너무너무 받았다.

그날 저녁은 화요일이라 레지오 회합에 참석하여 기도해준 단원들과 감격의 레지오 회합을 하는데, 어느 형제는 저의 야윈 모습을 보며 몸 좀 회복하여 시작하지 벌써 나왔느냐고 한다. 그해 11월에 배티성지에서 한국 최초의 신학교이며 최양업 신부님 사제관 초가집 지붕을 이엉을 엮어 개량하는 작업 봉사를 하러 갔다. 무거운 영마람을 어깨에 메고 사다리를 타고 지붕으로 올라가면 다른 형제들이 힘든 일은 하지 말라고 말한다. 퇴원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제가 그런 일을 하니 걱정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제 몸을 돌보지 않고 힘든 일을 해서 그런지 1월에는 속으로 꿰맨 실밥이 터져서 배에 힘을 주면 불룩 튀어나와 탈장이 되었다고 하여 또 전신마취 수술을 받고 열흘 만에 퇴원했다.

저는 개인택시를 운행하면서 선교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 냉담신자가 제 택시를 타면 저의 신앙체험 이야기를 해 주며 성당에 다시 꼭 나가라고 권면한다. 성당에 관심이 있는 손님이 타서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곧바로 관할 성당으로 달려가 사무장께 아니면 수녀님께 전달해준다.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저희 본당의 평협 회장직을 맡겨주시어 열심히 임무를 완수했고, 또 청주교구 가톨릭 운전기사 사도회 회장직을 맡겨주신 덕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음성 꽃동네를 방문하셨을 때 교황님 방문 준비위원으로 운전기사 사도회 형제들과 함께 주차 안내 봉사와 프란치스코 교황님 경호 보조 임무까지 무사히 마쳤다.

이렇게 고통의 은총 계단을 딛고 일어서니 주님의 사랑에 더욱 가까워져 있음을 깨닫는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무한한 은총과 자비 잊지 않고 주님께서 덤으로 허락하신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 얼굴 더럽히지 않는 주님의 자녀로 충실히 살아갈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무한한 은총과 자비 덕분에 오늘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